

샤머니즘에서 본 욕망의 뜻이와 풀이*

박 일 영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요 약〉

샤머니즘은 한국에서 기복신앙을 대표하는 종교현상으로 세간에 흔히 알려져 있다. 신령에게 정성을 들이고, 복을 구하는 기제(mechanism)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샤머니즘의 세계는 인간적 욕구 내지 욕망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장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재수굿’은 샤머니즘 신앙체계의 소위 “기복적인” 내용을 잘 표현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복을 빌고, 금전, 건강, 장수를 구하기 위한 좋은 운수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 또는 대상이 대체적으로 그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수굿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선, 샤머니즘에서 드러나는 욕구/욕망의 축원과 성취[뜻이], 그리고 욕구/욕망 성취의 걸림들에 대한 예방과 제거[풀이]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추구해야 할 목표를 실현하고 현실적인 장애를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샤머니즘 의례[놀이]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로 한다. 공인 경전이 없는 민중종교로서 샤머니즘의 사상이나 교리 내용, 신앙실천의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의례(儀禮) 현장에서 구송된 무가, 사설, 공수, 축원, 덕담의 내용들을 분석한다.

핵심 주제어: 샤머니즘, 욕망, 욕구, 뜻이, 풀이, 놀이, 의례의 교육적 의미

I. 서론: 욕망의 양의성 혹은 이중적 실재

‘욕망’(慾望, desire, Begierde)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놓고 보면 늘 헛갈린다. 국어사전에선 욕망을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는 것. 또는, 그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 그러나 여전히 용어 자체가 애매하고, 다의적이며,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 이 논문은 200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금성관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 2226쪽.

수 없다. 한편으로, 욕망이라는 말이 어쩐지 좋지 않은, 뭔가가 켜기는, 다루기가 꺼림칙한 대상을 지칭하는 느낌이다. 즉, 탐욕, 정욕, 육욕, 소유욕, 권세욕 등으로 대표되듯이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이야말로 생명의 증거이고, 생명활동과 생산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원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희망, 대망, 야망, 지식욕, 생산 의욕 같은 일군의 밝은 개념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²⁾

전통적 서구사상의 개념에 따르면, 욕망은 상실된 대상의 결핍 내지 결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elix Guattari)로 계보가 연결되는 탈구조주의 이론에서는 욕망을 무의식적 에너지의 능동적 흐름으로 본다. 다만 욕망의 왜곡과 도착이 이루어질 때, 과시증이나 독재의 광포한 모습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있었으며, 현대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광기적인 과소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³⁾ 그런가 하면, 욕망의 통제란 결국 지배자의 논리에 불과하며, 그것은 바로 물질적 통제를 통하여 생산물의 공정한 분배를 제어하고자 하는 가진 자들의 윤리덕목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한다.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민중 사이에 욕망의 평등, 욕망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세속화야말로 인류의 바람직한 역사발전의 방향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⁴⁾

현대에 와서 이러한 욕망의 무제한적인 추구는 결국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욕망의 왜곡과 소외를 불러왔다. 쾌락 자체가 ‘목적 없는 목적’이 되면서 욕망의 무한 질주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듯이 보이기도 한다. “에리히 프롬이 말하고 있듯이, 현대인은 오로지 타자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소비하고 더 즐기려는 욕망의 끝없는 경쟁을 하고 있다.”⁵⁾ 그리하여 인간은 목적에 유용한 행동방식을 상실하고, 인간의 본능은 동물보다도 못한 추악한 욕망으로 변질된 것도 사실인 듯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욕망이란 단순히 본능적이고 선천적이며 고정적이라서 자아의 통제에 온전히 복종해야할 충동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어찌 보면, 사회와 문화에 깊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인간 탐욕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욕망과 ‘욕구’(慾求 wants/wish)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선, 욕구를 문화적 조건과의 연관에서 대다수의 인간에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과 연관된 인간의 소망으로 본다. 그런가 하면, 욕망을 각 개인의 주관적 심리 가운데서 욕구가 변형된 것으로 여긴다.⁶⁾

그러나 바람직한 욕구는 후기 자본주의의 대량생산과 이어지는 대중소비사회의 출현으로 ‘소외’(alienation)된다. 대중광고의 휘황한 선전을 이용하는 생산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창출된 욕구는 부도덕하고 위험한 욕망들을 충족시

2) 김기곤, 『욕망의 인간학』(세종출판사, 1997), 16쪽 참조.

3) 전경갑, 『욕망의 통제와 탈주』(한길사, 1999), 230-231쪽 참조.

4) 김기곤, 앞의 책, 25쪽 참조.

5) 위의 책, 25쪽.

6) 위의 책, 113쪽 참조.

킨다.⁷⁾ 전통적인 금욕의 윤리는 이제 향락의 윤리로 대체된다. 금전만능의 속물근성, 쾌락주의(hedonism)는 여러 가지 상품을 끝없이 사려고 하는 욕망의 분출로 이어지다가, 그러한 행태가 좌절하게 되면 ‘욕구불만’(frustration)의 형태로 귀결되고 만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는 인간성을 소외시키면서 소비 욕망을 무한하게 자극한다. 소비는 이제 인위적으로 자극된 환상의 만족을 쫓아, 신기루를 찾아 헤매는 속절없는 일이 된다.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가 말하는 “소비자는 왕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의 창조, 욕망의 창조를 통해 대중 소비사회의 출현”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편, 현대 사회는 기묘한 이원적(二元的) 모습을 띠고 있다. 생산의 차원에서는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엄격한 금욕과 정확한 목표달성을 장려한다. 소비의 차원에서는 제 마음대로, 무한한 향락과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찬양한다. 이와 같이 극명하게 상호 모순되는 요소들을 나뉘대로 ‘통합’시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대인이 처한 운명이기도 하다.⁹⁾ 시장 자본주의와 대중 소비사회로 이어지는 오늘의 세상에서 자율적인 통제 장치는 전무한 듯이 보인다. 재미와 재물만을 쫓아서 무한한 소유만을 부르짖을 것인가, 아니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협동하면서 “살리고, 섬기고, 비우고, 나누는”¹⁰⁾ 충만한 존재의 삶을 따를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¹¹⁾

인간적 ‘접촉’은 없고 기계적 ‘접속’만 있다는 풍자가 적시하듯이, 가상적인 드라마의 세계, 기계와 나누는 대화 따위 생활의 전 영역으로 확산된 소외는 오히려 오늘날 종교와 영성이 번성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특히 원만한 인간관계와 공동체성을 갈구하는 ‘욕구의 소외’는 통합(統合)의 종교로 알려진 샤머니즘의 종교교육적 요소에 대하여 다시 들여다보도록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분(未分)과 통합의 종교 샤머니즘의 윤리에서 배울 점이 바로 왜곡된 욕망의 극복이라는 사실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샤머니즘은 한국에서 기복신앙을 대표하는 종교현상으로 세간에 흔히 알려져 있다.¹²⁾

7) 갈브레이드, 『풍요한 사회』. 김기근, 앞의 책, 125-126쪽에서 재인용; 이신영 기자, 〈고소득 성매매 워킹 푸어〉, 《인터넷 조선일보》, 2009년 10월 14일자 참조(2009년 10월 14일 접속). 매매춘을 통해 돈을 많이 벌지만, 낭비가 심해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working poor] 고학력 젊은 여성들의 세태를 르포 형식으로 다룬 기사이다.

8) 김기근, 앞의 책, 153쪽.

9) 위의 책, 177쪽 참조.

10) 이기상, 『21세기 기술시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 모색』, 『가톨릭철학』 창간호(한국가톨릭철학회, 1999), 125쪽.

11)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대학 도서관에서 대출 받는 도서들이 만화 등 가벼운 읽을거리에 편중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벼운 재미를 쫓는 젊은이들을 지칭하여 “즐기고 싶은 욕망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밝은 세대”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사설〉, 《가톨릭대학보》, 2009년 10월 13일자, 제2면. 한편 위의 대학신문에는 학생 독자의 다음과 위의 글이 실려 있어서 이러한 세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혁주, 〈인간의 욕망, 본능적인 필요악〉, 《가톨릭대학보》, 2009년 10월 13일자, 제4면: “인간에게 욕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것, [중략] 동물의 본능과는 다르게 인간의 욕망은 인간만이 가진 일종의 소유물, 인간이 인간임을 알게 해 주는 그러한 것이다. 인간에게 욕망마저 사라진다면 그저 생김새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신령에게 정성을 들이고, 복을 구하는 기제(mechanism)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샤머니즘의 세계는 인간적 욕구 내지 욕망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장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재수굿’은 샤머니즘 신앙체계의 소위 “기복적인” 내용을 잘 표현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¹³⁾ 복을 빌고, 금전, 건강, 장수를 구하기 위한 좋은 운수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 또는 대상이 대체적으로 그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⁴⁾

이하에서는 재수굿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선, 샤머니즘에서 드러나는 욕망의 축원과 성취[맞이], 그리고 욕망 성취의 걸림들에 대한 예방과 제거[풀이]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추구해야 할 목표를 실현하고 현실적인 장애를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샤머니즘 의례[놀이]에서 드러나는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로 한다.¹⁵⁾ 공인 경전이 없는 민중종교인 샤머니즘에 있어서 사상이나 교리 내용, 신앙 실천의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의례(儀禮) 현장에서 구송된 무가, 사설, 공수, 축원, 덕담의 내용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II. 샤머니즘에서 맞이하는 욕망 - 축원과 성취의 긍정적 요소인 이상태

재수굿에서 부와 재물, 건강과 출세에 대한 욕망은 인지상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하여 이즈음 행해지는 곳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곳이 바로 재수굿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번덕스러움과 성공의 우연성이라는 현상은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묘사하는 신령들의 번덕스러운 성격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거지와 유사한 공통점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이와 위의 재수굿 의례는 상황적으로 정당화된다.¹⁶⁾

한국 사회 전반의 고위험성(high risk)과 빈번하게 들이닥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샤머니즘 신앙은 나름대로의 ‘종교문화적 논리’를 형성한다. 고도의 위험을 극복하는 기적이 신령한 조화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샤머니즘 의례를 더욱 번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¹⁷⁾ 그리하여 재수굿을 의뢰한 굿주[신도]들이 위기로부터의 탈출에 있어서 종교적 방

12) Cfr. Laurell Kendall, “Korean Shamans and the Spirits of Capitalism”, *American Anthropologist* 98:3, September 1996, p.522. 여기서 Kendall은 기복신앙을 “의례적인 언어와 축원 행위를 통하여 부와 성공의 약속을 제공”하는 신앙 형태로 정의한다.

13) 김성례, 『기복신앙의 윤리와 자본주의 문화』, 『종교연구』 27(한국종교학회, 2002), 61-62쪽 참조.

14) 박일영, 『우리나라의 복을 비는 마음』, 『성서와 함께』 271(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1998.10), 50-55쪽 참조.

15) 김현선, 『황해도 무당굿놀이 연구』(보고사, 2007), 129쪽 참조. 여기서 김현선은 황해도 굿의 구조를 맞이-풀이-놀이의 관계로 규정하면서, 신의 위계에 따라 굿의 연행 방식이 달라진다는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16) Cfr. Laurell Kendall, op. cit., p.516.

17) 필자와 함께 샤머니즘을 공동 연구한 독일 뮌헨 대학교의 종교사회학 교수 Jürgen Horst Helle는 1998

법을 택하게 된다.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종교적 방법이란 바로 신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조상의 분노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신령과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는 정성을 들임으로써, 재수굿은 신령과 조상이 베풀어주는 은혜[재수]에 대한 보답의 의례적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은혜-보답의 대응관계가 샤머니즘 신앙의 윤리를 형성한다.¹⁸⁾

샤머니즘은 현실에서 닥치게 되는 욕망의 좌절이라는 위기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한국인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대변하는 종교현상으로 인식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비난은 샤머니즘을 “개인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행복을 최대화하고 불행을 최소화하려는 현세적 공리주의”¹⁹⁾ 성향과 연결시킬 때 더욱 가중된다. 그러나 일상적인 위기감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당을 찾아가서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구하며, 금전이나 재물의 문제해결에 대한 조언을 마련하고 있다.²⁰⁾

이제 의례의 한 장면을 통하여 ‘맛이’하고자 하는 욕망의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황해도 식으로 진행되는 ‘재수굿’에서 준비과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제차에 접어들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분은 ‘산천거리’이다.²¹⁾ 이하에서는 먼저 산천거리의 ‘상산무가’(上山巫歌)와 ‘사설’에 나타난 축원과 성취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요소들을 일별해 본다.

이 정성 드림은 다름이 아니라, 육십칠세에 노인 대주(大主)
삼십년에도 왕운(王運) 들고, 오십년에도 통운(通運) 들어
꽃맛이에다 재물 맛이, 복맛이루다 대령이외다.
복맛이루다 대령할 제, 신의 범당은 어디메뇨?
성복구하구두 안암동인데, 이씨 범당에 허일하여
월출당에다 날을 잡고, 추영당에다 길을 잡아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려다가, 하늘이 아시는 동락님네
산천이 아시는 신사(神事) 받아, 신사 받으러 내력(來歷) 잡고
만신령(萬神靈)님에 신사(神師)님네들, 삼곡사(三谷寺)에다 김씨 범당

년 4월 5일 서울 종로5가 연강홀에서 ‘제주 4·3 시국굿’을 참관한 후 밝힌 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한국인들의 샤머니즘적 열정[굿판의 신명]을 보니, 외환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가 펄펄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멀지 않은 장래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었다.

18) 김성례, 앞의 글, 62-63쪽, 67쪽 참조. 이어서 김성례는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직후 부도위기에 몰린 신발공장 사업주 일가가 의뢰한 재수굿의 사례를 소개한다. 김성례는 여기에 소개한 사례를 1천만 원의 굿 비용을 들여서 결과적으로 50억 원의 부도를 막는 굿덕(merit of ritual)을 본 “기적의 드라마”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굿덕을 보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9) 최종철, 『종교의 일상사회학』, 일상문화연구회 엮음, 『한국인의 일상문화』(한울, 1996), 168쪽.

20) MBC-TV, “점집이 봄된다”, 1995년 1월 24일; MBC-TV, “점술가가 판친다”, 1996년 1월 9일; SBS-TV, “귀신 장사하는 사람들”, 2008년 11월 1일 참조.

21) ‘上山맛이’라고도 한다. 上山은 태초에 신령이 강림한 신성한 장소로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꼭대기를 말한다. 양종승, 『황해도 맛이굿 형식과 특성 고찰』, 한국무속학회 편, 『황해도 굿의 이해』(민속원, 2008), 34쪽.

김씨 법당도 초면이며, 산천 신령도 초면인데
 윤씨 가중(家中)이 초면이외다. 초면으로다 대면하니
 모르는 것이 많사옵고, 잘잘못도 감싸옵고
 부정한 일이 많더라도, 감싸주고 효험 줘서
 육십칠세에 노인 대주, 복맞이루다 받으소서[밀줄 필자].²²⁾

약 15분여에 걸쳐서 구송된 청신(請神) 무가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산천거리 사설’²³⁾에서는 빠른 어조로 다음과 위의 내용이 읊조려진다.

에- 세경[夕陽] 세파[世波]는 늦어가니, 잠시는 잠깐에, 성씨는 윤씨라 가중에, 명산은 대천에 이천문(天文)에다, 천문은 문 따라 삼곡사에 오셔서, 오늘은 다, 육십은 칠세에 노인은 대주에, 삼십년에 왕운 들고, 오십년에 통운 들어, 인간에 재물맞이, 복맞이로 대령하자고, 신의 법당에 도입하야, 만 성수님 앞에, 월천강(月天江)에 날을 잡고, 주역성(周易星)에 시를 잡아, 생기복덕(生氣福德)가려, 자한자공 막아 달라, 오늘날 여기 장군님들 앞에, 상 다른 토령에다가, 오색은 과일에다, 합지는 적밥에다, 육식은 제각각, 온갖 정성 하난다고 여쭙어라, 아헤야 아헤야밀줄 필자.²⁴⁾

이어서 재수굿은 노래와 춤과 음식, 그리고 ‘정성’²⁵⁾을 신령들에게 바치는 여러 ‘거리’[祭次]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간다. ‘대감거리’에 이르러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신을 청신(請神)한 후에, 이어지는 ‘축원’ 내용[사설]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세경[夕陽]은 늦어가니, 만주(萬主) 대감님 내릴 줘서
 어른 대감 아이 대감에, 남대감에 여대감에 하남[合意] 받아
 시루 찬 공[功績]으로 열어봐 주구.....
 세경 세파 늦어가니, 만주 대감네들 오셨든 길에
 터전 마전 사향(四向) 대감님들, 원산은 대감님과
 남산 범산 일대 대동(大同)으로, 남부(男負)루 여대(女戴)루 일대 대동으로
 좌청룡 우백호로 내리시는데,
 때도 좋고, 꽃이 피어 만발하구, 잎이 돌아나고

22) 서울 소재 삼곡사 굿당에서 1984년 3월 6일과 7일(양력) 이틀 동안 진행된 ‘재수굿’에서 당시 40대 중반의 황해도 출신 무녀 Y가 구송한 ‘상산무가’ 중 초입 부분. 필자가 참여관찰하고 녹취한 자료임. 이하 녹취 자료들은 부분적으로,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 한국어-독일어 對譯으로 分節하여 소개한 바 있음. Park, Il-young, *Minjung, Shamanismus und Inkulturation. Schamanistische Religiosität und christliche Orthopraxis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Switzerland: University of Fribourg, 1988), pp.166-266.

23) 이와 같은 형식의 축원문을 ‘날만세받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나, 필자의 견해로는 ‘날만세받이’는 사설[축원문]의 구송 형식을 뜻한다고 본다.

24) 위의 ‘재수굿’에서 무녀 Y가 구송한 ‘산천거리 사설’ 중 일부. 필자의 녹취 자료.

25) 굿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용되는 ‘정성’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주로 상돈, 별비(別費)라는 용어로 일컬어지는 奉獻金을 위시한 제물 일체를 뜻한다.

만화방초가 다 났으니, 꽃맛이 정성으로 받아놓고

잎맛이 정성으로 받으실 때, 왕시 일전에 한 거리 문안으로

산에는 주신들이 섰던 자리, 재수 있게 밝히고 갑시다. 아해야! 밑줄 필자.²⁶⁾

초기 자본주의가 물질적 욕망의 억제로서 금욕과 소명(召命) 의식에 따른 노동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이루어졌다면²⁷⁾, 후기 자본주의에 와서 물질적 풍요로움은 ‘기적’으로 체험된다고 한다.²⁸⁾ 기적을 바라는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모든 재화(財貨)에는 신비한 힘이 부여되며, 그렇게 신비화된 재화는 상징적 가치를 갖게 된다. 종교 또한 물상화(物像化 reification)되어 성스러운 ‘영적 상품’으로 치부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소비 만능 사회에서 물질과 비물질[영적인 것]의 구분은 없어진다.²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위에 인용한 재수굿 의례에서 신도의 “정성”[제물]은 탈물질화(脫物質化)되어, 신령이 베풀어주는 성스러운 은혜, 즉 “재수”로 전환된다. 이렇게 주어지는 신령의 은혜가 상징적 언어로는 “꽃맛이, 잎맛이”로 표현된다. 후기 자본주의 문화에서 샤머니즘 신앙은 기적을 대망하는 사고방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특히 합리적 원칙에 의하여 작동하지 않는 한국의 경제 체제에서 재화의 기적을 바라는 주술적 힘에 대한 의존은 심화된다. 샤머니즘은 이제 합리적 원칙과 이성의 힘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현실적 욕구와 물질적 욕망을 신령의 재수와 복의 종교적 의미로 전환하고, 소비의 윤리를 재수굿이라는 양식으로 의례화(儀禮化) 한다.

일상적인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과제로 삼아 종교적인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샤머니즘의 의례 내용은 현재에 비중을 두고 살고자 하는 욕구 내지 욕망의 표현이다. 이러한 욕구가 의례 현장에서 바로 복이나 재수라고 진술된다.³⁰⁾ 의례의 진행 절차에 따라 신령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복과 재수를 받기 위하여 신령과 인간 사이에 다양한 소통방식들이 등장한다. 그것은 무가, 사설, 공수 위의 언어적 방식이거나, 무당이 부채나 깃발을 들고 무엇인가를 끌어들이는 시늉을 하면 신도가 옷자락에 받아 담는 ‘짓거리’[gesture]를 보이는 행위적인 방식일 수도 있다.

Ⅲ. 샤머니즘에서 풀이하는 욕망 - 예방과 제거의 부정적 요소인 현실태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의 모습은 여전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형

26) 위의 ‘재수굿’에서 무녀 U가 구술한 ‘대감거리 축원[사설]’ 전문(全文). 필자의 녹취 자료.

27) 막스 베버,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문예출판사, 2000) 참조.

28)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문예출판사, 1991), 22쪽 참조.

29) Cfr. Mark Taylor, *About Religion: Economics of Faith in Virtual Cultur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p.147.

30) 김인회, 『한국인의 가치관』(문음사, 1979), 171쪽.

대로 드러난다. 그리하여 신령과 인간의 통교(communication)를 통하여 신들을 움직여서 지금 여기서 화(禍)를 면하고 복(福)을 받자는 성향이 강하다. 즉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의 운명을 의례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위에서 소개하였던, 재수굿 첫머리에 등장하는 ‘산천거리 무가’의 뒷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복을 받아 욕망을 성취하는 데에 걸림돌과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거부 내지 제거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맞이루다 받으시거니와, 동서팔방에 각 골마다
 동구(洞口) 밖으로 다니시더라도, 거리 노중(路中)³¹⁾을 받아가며
입술 귀술(口舌數)에 무관에 질병, 거리 노중을 막아줘요.
거리 노중을 막거니와, 살아생전에 노인 대주에
 슬하 자손에 근심 없고, 우환(憂患) 질병이 없도록
 만수무강에 도와주소사.
 안에 안당에 장씨나 안당, 오십 오세에 신궁(神宮) 마만데
 이번 정성에 색신(塞神) 드리면, 색신 들이로 받으시고
 내외(內外) 간에도 건강하고, 이별 없이를 도와주소사.
이별 없이도 도와주거니와, 거리 노중에 입술 귀술(口舌數)
화재(火災) 수재(水災)에 말문 구설, 우환에 질병이 없으소서³²⁾필줄 필자.

무가와 사설이 구송되고 나서, 무당은 계속하여 노래와 춤, 굿상에 마련한 음식으로 신령들을 불러들여 대접하면서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하여 신령들이 즐기고 놀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마침내 신령에 접신한 무당은 제가집 식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산천거리 공수’를 내린다.

무당 Y: 에— 윤씨는 가중에, 인간의 재간이 좋아 잘 사는 줄 아느냐? 에— 중간에 가서 꿈을 깨어놓고 보니, 자손의 풍파(風波)가 어떠하며, 인간의 풍파, 재물의 손괴(損壞)가 어떠하뇨?

재비: 막아주시겨!

무당 U: 몰라서 그렇시다.

무당 Y: 윤씨는 가중에 본산은 산천에 이 날을 잡을 적에, 명산은 대천에 찾아다녀 가면서...

무당 U: 복 많이 주시요!

무당 Y: 에— 자손에 명을 달라, 복을 달라, 공을 들이던 한 무리가 뚜렷하고,

재비: 예에—

무당 Y: 에— 어째서 오늘은 다, 우려 두고 제쳐두고 보니, 산천에 빈 일이 어떠하고, 불사에 빈 일이 어떻게만 하던가요?

31) 路上에서 벌어지는 사고, 즉 교통사고를 일컫는다.

32) 서울 소재 삼곡사 굿당에서 1984년 3월 6일과 7일(양력) 이들 동안 진행된 ‘재수굿’에서 당시 40대 중반의 황해도 출신 무녀 Y가 구송한 ‘상산무가’ 중 후반부로 각주 22의 내용에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임.

무당 U: 앞으론 다 그런 일 없도록 막아달라는 신사(神事)올시다.

무당 Y: 에- 오늘은 신의 범당 도입하야, 오늘 다 삼십년에 왕운 들구, 오십년에 통운 주구, 나라는 대주에, 에- 꽃맞이, 재물 맞이, 복맞이로 대령하고 보니,

재비: 소례(小禮)를 대례(大禮)로 받으시겨.

무당 Y: 에- 한편으로 서운섭섭하고, 한편으론 쾌쌌하고 허망하나, 에- 그러나 노인은 대주에 마음 정성이 지극하고,

재비: 그렇시다, 예.

무당 Y: 노인은 마마에다 마음 정성 지극하야, 예, 윤씨는 가중에다 가지 뵈고, 에- 오늘은 이 신사후덕 입게 도와주시고,

무당 U: 옳시다.

무당 Y: 예, 노인은 대주에 삼십년에 왕운 들구, 오십년에 통운 들어, 꽃맞이 재물 맞이 복맞이로 받고 나서,

재비: 고맙시다.

무당 Y: 에- 살아는 생전에, 노인 마마 자손에 힘한 일 없게 도와가며,

재비: 섬겨주시겨, 다.

무당 Y: 에- 오늘은 만수무강하게 도울 적에, 이번에 이 정성 아니 드렸더라면은, 예, 오십은 오세에 노인은 마마, 오늘은 거리에 노중에 홍액(橫厄) 걸루다 해서, 금일에 사신에 행차 ^{길³³⁾}에 넘을 듯 했으니,

무당s U: 그런 일 없게 해 달라고, 다 대령했시다.

무당 Y: 재물이 아깝다 하지마라. 재물에 부절 끼지 말으시구, 에- 하두 힘한 길에, 인신 길에 대수대명(代數代命)³⁴⁾, 색신 길로 대령할 적에, 천 번도 잘 하고, 만 번두 잘 하외다.

재비: 옳시다.

무당 Y: 하늘위의 높은 수정, 오십은 오세에 노인 마마, 어찌 어찌 할 뻔 했던가요? 에- 이 번에 다 해서, 이월에 영등 지나가고, 삼월 달 지나가고, 예, 사월 달 든 홍액을 어찌 넘어가며, 물려잡은 육, 칠월 달 어찌 어찌, 노인 마마, 지나갈 것이요?

무당 U: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요.

무당 Y: 에- 이번에 이 정성 대령하니, 집안에서 곡(哭)하는 소리 진동하니,

무당 U: 그런 일 없이 해 달라고 다 대령했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쇼.

무당 Y: 예, 노인 대주 일도 정성에 삼월 정성 도운 끝에, 이 날로 다 받고나서, 다 도와가며,

무당 U: 이별 없이 다 도와주시요.

무당 Y: 예, 오늘은 다, 스물은 일곱에다, 중남은 자손에, 오늘은 이 차 저 차, 차를 갖고 다니더라도, 홍액 길을 막아는 준다마는,

재비: 다 도와주세요.

무당 Y: 예, 삼월은 초열흘 가까이 이 짝 저 짝으로 선보름 넘기 전에, 예, 차 갖고 다니는 건

33)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간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말함.

34) 닭이나 돼지, 소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인간의 목숨을 구하는 일. 病鬼가 신령의 힘으로 환자의 몸에서 제거되어, 흔히 ‘균용닭’이라고 불리는 산 닭의 몸속으로 넣어진다. 그 닭은 인간의 목숨을 대신하여 땅에 묻힌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의 ‘속죄양’ 사상과 관련하여서도 흥미로운 공통점을 지닌다.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민음사, 1993), 154쪽; Raymund Schwager, *Brauchen wir einen Sündenbock?* (München, 1978) 참조.

조심조심 많이 해야지,

무당 U: 이 정성 드리고, 다 먹이고... 막아줘요!

무당 Y: 도와는 준다마는, 예, 인간이 조심해야겠고, 스물은 일곱에 홍수(洪水) 전으로다가 거리에 노중(路中) 두 그렇거니와, 예, 용신(龍神) 길에 가지 말아야 되겠고, 예, 오늘은 다 이 번 정성에 하명 같이 받고서, 막아는 주고, 다 막아는 준다마는, 인간이 조심할 건 조심해야겠으니,

재비: 옳시다.

무당 Y: 선보름 넘기 전에다가, 아니 갈 데 가지 말아야 되겠으니,

무당 U: 그걸 다 어떻게 사람이 막아요. 성수님들이 왔다가서, 이 정성 드리고... 막아줘야지.

무당 Y: 예, 오늘은 하늘위의 정성에 평지 같이 받고 가며, 언제든지 갇아는 준다마는, 인간이 조심할 건 조심해야겠으니, 예, 선보름 넘기 전에 앞 차 뒤 차 조금 조심해서, 선보름 넘기면은, 그래도 이번에 다 막아주고, 만주(萬主) 조상님네가 다 막아줘서, 예, 두고 보자. 신사덕(神事德)입게 도와주겠으니,

무당 U/재비: 고맙시다.

무당 Y: 예, 하나 같이 짧은 명은 이어 가고, 기나긴 명 사라다가, 수명장수 시킬 적에, 스물은 넷에다가 하남은 자손 나비가 그래도 나라님 전에 나가서 있으니 망정이지, 집안에 있더라면은, 한 발은 들여놓고 한 발은 내어놓고, 그러는 수전인데, 나가 있으니, 그것 저것 다 때워주고, 막아는 준다마는.....

재비: 인수대명(人壽代命)으로 다 막아주시거!

무당 Y: 손주, 손녀 다 하나 같이 막아줘서, 예, 집안에 짧은 명은 이어 주고, 기나긴 명 사라가며, 이번에 다 신사 덕 입혀가서,

재비: 고맙시다.

무당 Y: 예, 이번 정성에 삼년 세³⁵⁾가 고비 고비 넘겠구나[밀줄 필자].³⁶⁾

무당이 신 내려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을 흔히 ‘공수’라고 한다. 그러나 위의 인용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공수는 단순히 신령의 의사를 인간에게 전하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神託 oracle)이 아니라, 신령과 인간 사이의 쌍방 간 의사소통(意思疏通 communication)이다. 공수를 내릴 때에는 신 내린 무당이 일방적으로 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무당과 재비(樂土)들이나 의뢰인들이 통명스레 대꾸를 하고 때를 쓰거나,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한다. 그러면 신 내린 무당은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에 또 적절히 대응을 한다. 이와 같이 막힘없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신령(天道)-인간(人心)-자연(地理)이 조화를 이룬다.³⁷⁾ 이런 맥락에서, 꼬이고 뒤틀린 욕구 불만은 해소되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예방되며, 욕망 충족의 걸림돌이 제거되어가는 훈육 내지 교육 과정을 형성한다.³⁸⁾

35) 의뢰인의 집안에 들어와서 3년 동안 횡방하는 나쁜 영향력들.

36) 위의 ‘재수굿’에서 무녀 Y가 내린 ‘산천거리 공수’ 전문. 필자의 녹취 자료.

37)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집문당, 1987), 87쪽 참조. 이러한 구도 속에서 욕망은 인간 마음(人心)의 일부분을 이룰 뿐이다.

38) 위의 책, 112쪽 참조.

재수굿 의례를 통하여 드러나는 욕망의 실체와 대상은 신령과 조상이라는 초인간적인 힘에 귀의함으로써 성취하고 실현하자는 기복양재(祈福禳災)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한 해답 추구를 더욱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습이다.³⁹⁾ 그러한 방법과 논리가 가능한 근거는 “소례를 대례로 받는” 신령의 무한한 아량과 자비심에 있다. 신령의 경고는 오로지 모든 살림살이가 신령의 덕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을 일깨워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점을 알아듣고 사죄의 표시로 정성을 바치면 신령의 분노와 노여움은 해결되는 것이다. 이 때 신도가 바치는 정성이란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이익을 꾀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차피 신령에게 되갚아주어야 할 부채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령이 내려주는 재수와 복은 인간이 바치는 정성의 크기만큼 만이 아니라, 신도가 원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게 거저 베풀어주는 은총(恩寵)인 것이다.⁴⁰⁾

IV. 샤머니즘에서 놀이하는 욕구 - 의례로 재연(再演)되는 교육적 과정태

샤머니즘 신앙에는 죄의식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샤머니즘을 비윤리적이고 저급한 종교라고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지배자들은 민중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토착종교를 “미신”(迷信)으로 매도하는 대신 자신들의 신념체계를 강요함으로써 존재기반을 강화해 왔다.⁴¹⁾ 실제 굿을 참여-관찰하여 보면, 샤머니즘의 세계 안에도 건전한 윤리에 의거한 교육적 내용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가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부모에 대한 효성, 형제간의 우애, 나라에 대한 충성심, 불쌍한 이를 도와주기, 자신을 희생하기 등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⁴²⁾

샤머니즘은 그러한 윤리적 요소들을 내포하면서도 윤리의 차원을 넘어선다. 무당은 신령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인간관계만으로 해명되지 않던 물음들을 해명해 주고 가슴깊이 맺힌 한을 풀어주는 ‘영적 교육자’의 역할을 한다.⁴³⁾ 이해되지 않았

39) 정진홍, 『韓國宗教文化의 展開』, 『韓國宗教의 理解. 張秉吉教授 隱退紀念論叢』(집문당, 1986), 127쪽 참조.

40) 김성례, 『神들림 체험과 은총에의 추구』, 『문화인류학』 16(한국문화인류학회, 1984), 73-86쪽 참조.

41) 민중종교에 대한 이러한 편협은 각주 4)에서 인용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즉, 욕망의 통제가 지배자의 논리이며, 물질적 통제를 통하여 생산물의 공정한 분배를 제어하고자 하는 가진 자들의 술책이라는 인식과 통하고 있다. 최경호, 『“미신타파” 이후의 洞察과 마음의 正體性』(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참조.

42) 조형경, 『바리공주 무가의 기호학적 분석』(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참조.

43) 샤머니즘 용어들의 어원에 관심을 가졌던 국어학자 서정범은 ‘스승’이라는 말이 무당, 교사, 승려의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무당, 교사, 승려가 공히 정신적인 지도자요 교육자로서 尊長者의 위치에 있었음을 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샤머니즘의 현대적 의미. 제2회 국제 민속

던 불행들로 인해 욕구 불만에 시달리고 고통받던 관계가 한-풀이를 통해 치유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적극적으로 한을 수용할 수 있는 ‘한-맞이’가 가능해 진다.⁴⁴⁾ 따라서 샤머니즘의 의례 현장은 한-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욕망의 성취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의 의미를 깊이 있게 체험하면서[삭이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성적으로 성숙한 한-맞이의 자세도 갖추게 만들어 준다.⁴⁵⁾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재수굿이 진행되는 중에 ‘대감거리’에서 대감신이 내려서 신의 말을 전하는 주무(主巫)와 인간을 대표하는 재비(樂士)와 조무(助巫) 사이에 주고받은 ‘공수’의 내용이다. 실현하여야 할 긍정적 욕구의 대상을 다시 확인하고, 예방하거나 제거해야 할 부정적 욕망의 내용을 무의로 재연하는 교육적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여겨진다.

무녀 U: 이복소!

재비: 예-

무녀 U: 예, 이름 좋은 한 울타리요, 빛 좋은 개살구 같아. 꿈은 좋기야 좋지. 용사실⁴⁶⁾로 내림 받아, 달고기도 삼천 근이요, 익은 고기도 삼천 근인데,

재비: 예-

무녀 U: 백 근이 줄줄, 백 근 내려와서, 예, 명산대천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경치 좋아 이 골 안 산 들어서서, 명벌이냐 복벌이냐?

재비: 명벌이, 복벌이로 다 드립니다.

무녀 U: 예, 오냐, 산천에 열어 달라 이 정성이냐?

무당 Y: 예, 그저 명실 복실 주십시오, 그저.

무녀 U: 그러나 저러나, 욕실 많은 대감에다가 탐실 많은 대감에다 혹실 많은 대감이야.

재비: 옳시다.

무녀 U: 예, 허나 다 이 일도정설 대령에, 열두거리 각 거리들 다 잡술 적에, 네 눈이야 내 눈이야, 내 눈이야 네 눈이야. 예, 허나 내가 잘 놀고 한 거리 문안 잘 받아나야,

재비: 대감님이 제일이겠쥬, 거저.

무녀 U: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욕실도 혹실도 아무리 없다 해도, 허, 대감님이라고 코도 없고 눈도 없는 줄 알았더냐?

학 학술회의. 동양 샤머니즘학자 대회록』(이리[익산: 원광대학교 출판부, 1972), 149쪽: ‘종합토론’ 참조.

44) 그리스도교 영성가인 Henry J. M. Nouwen은 이렇게 자기가 신봉하는 가치관에 투사하여 스스로 해결의 길을 찾고, 남에게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종교 지도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라고 부른다. 헨리 나웬, 이봉우 역, 『상처 입은 치유자』(분도출판사, 제8쇄: 2002), 93-112쪽 참조.

45) 박일영, 『한국 무교의 이해』, 종교학총서 9(분도출판사, 제2쇄: 2003), 180쪽 참조.

46) ‘사실’ 또는 ‘사술’은 희생제물이나 희생의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용사실’은 그 중에서도 물(龍王, 龍神)과 관련된 희생제물이나 희생의식이다. 사술이라는 용어가 몽골어의 ‘사출리’와 친연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몽골에서는 창처럼 생긴 기다란 막대기에 희생동물을 꿰어 비스듬하게 바닥에 세워 신에게 바치는 제물봉헌 행위를 ‘사출리’라고 한다. 박원길, 『북방 민족의 샤머니즘과 제사 습속』(국립민속박물관, 1998), 47-49쪽 참조.

재비: 아, 명 주고 복 주면 먹을 게 다 있겠지요.

무녀 U: 예, 옛날 옛적에 힘, 힘, 큰 기침하던 나야, 뻘.

재비: 예, 옛날 바람 다시 불게 섞겨 주시거.

무녀 U: 그러나 저러나 한 잔 먹어 한 투정에, 두 잔 먹어 두 투정이야. 예, 허나 다 세 살 아기도 열려 받고, 네 살 아기도 열려 받아서,

재비: 좋시다.

무녀 U: 안 살던, 못 살던, 장래를 길게 보고 살려준대도, 눈 뜨고 보자니 우습기 한이 없고, 가소롭기 한이 없구나.

무당 Y: 아, 그러나 다 대주(大主)⁴⁷⁾의 정성이고, 기주(祈主)⁴⁸⁾의 정성이예요, 다.

무녀 U: 예, 허나 다 이 골 안 산에 상상봉에 다다랐을 제, 예, 청주(淸酒)는 어디다 두고, 구더기 떠다 담근 주(酒)냐? 명주(名酒 혹은 命酒), 복주(福酒)는 어디다 두고,

무당 Y: 저기 다 대령했답니다.

무녀 U: 예, 그냥 없다, 없다, 또 다 세워서, 아무리 없다고 해도, 아이고오, 망측해라! 내가 옛날 옛적에, 안강 머리 소시 적에, 하, 썩은 새끼로 내가 대님 건듯 매고, 번갯불에 담배도 톱 붙이던 난데,

무당 Y: 아, 대감님! 대주님이요, 저 상 위에 두둑하니 갖다 놓았답니다.

무녀 U: 아이구, 망측해라! 동태만 먹고 사나? 통 갈비찜은 어디다 두고, 양지머리 십 년에 태평가를 부르자고... 예, 모진 건 내치고, 들일 거는 들어 달라는 정성이 아니겠나?

재비: 옳시다.

무녀 U: 아, 그러나 저러나, 아이 대감, 어른 대감, 양반 대감, 노신⁴⁹⁾ 대감이야. 아, 그리고, 나, 문간을 지키던 쌍놈 대감도 들어왔다고.

재비: 그렇지요. 상청(上廳), 중청(中廳)이 있지요.

무녀 U: 아, 이 정성 들어놓고서, 나 심통⁵⁰⁾을 한 번 부러볼까?

무당 Y+재비: 아, 그러시면 되나요!

무녀 U: 그러면 안 된다고?

재비: 물론이죠.

무녀 U: 공든 탑이 무너지랴, 옛말이 있으니,

재비: 단 값도 해야 되고, 쓴 값도 해야 된다고요, 다.

무녀 U: 예, 내가 먹은 값, 단 값 쓴 값을 해 달라는데?

재비: 그렇시다.

무녀 U: 예, 어찌 다 둘러보니, 신루 찬 공을 둘러보니, 애개- 망측하기 한이 없네.

무당 Y: 다 대감님 위한다고 정성껏 해다 놓은 거예요.

무녀 U: 예구, 아, 우리 옛날 옛적에, 이복소, 하, 노인마마!

기주: 네-

무녀 U: 잘 들어 복소. 우리 옛날 옛적에 떡 할 적엔 이렇게 왜글데글하는 굶다란 팔이 없었지,

47) 굿을 의뢰한 집안의 남자 대표, 가장.

48) 굿을 의뢰한 집안의 여자 대표, 주부.

49) 놀이하는 혹은 놀았던.

50) 이제까지 신령이나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한테 대한 질책, 경고성 위협.

그치? 채를 이렇게 쳐 가지고 하냈는데, 하이구,

대주: 네에, 요 담엔 다 그렇게 하지요.

무녀 U: 하, 이걸 다 어떡하나? 하이구나, 망측해라.

재비: 달나라, 별나라 가는 세상이니까 뭐.

무녀 U: 허, 이걸 누구 먹으라고 해 놓았나, 그래, 이걸? 예구, 망측해라. 쌍스럽기 한이 없네, 그러.

재비: 아니죠.

무녀 U: 이복소! 하, 여기가 한양 성내라면서? 예, 허나 이 정설 들여 놓고서, 세살은 아기가 천 년은 왕손, 만년은 왕손 도와주고, 인수인간에 젖은 님도 벗겨주고, 재물이 평평 자라나고, 인간이 다툼 없이 해 달라는 정성인데,

참여자 모두: 예, 예.

무녀 U: 아, 오십보백보 아니겠나? 많이는 노인 오십 막아놓고, 껌씹하기 짝이 없고, 눈 뜨고 보자 하니 많이도 드렸구나.⁵¹⁾ 그러나 저러나 이 정설 드러놓고, 삼년 석 달 가기 전에 부귀천 도달 하면, 땡땡이 꼬랑지 감아 주겠습네?

무녀 Y: 아, 네에.

무녀 U: 희튼 짓 다시 안 하겠나?

참여자 모두: 안 하지요!

무녀 Y: 그렇게 해 놓고, 그 때는 그 터⁵²⁾에서 할 거예요, 이제.

무녀 U: 허, 그러면 우리 만주대감은 조상은 산천으로, 아, 우리 7대조 할아버지는 수염은 내쉴 지 않고, 치솔어 가면서, 씨암탉걸음 걷고서, 하, 내가 동네 전에 내 앞에 지나갈 적엔, 쉬익 쉬익 지나가던 난데,

무녀 Y: 그렇게 섬겨주시거.

무녀 U: 그러나 저러나, 우리 본향 산천으로 쇠나 한 번 열어보세[밀줄 필자]⁵³⁾

위의 공수 내용에서 대감신은 스스로가 “욕심 많고, 탐심 많고, 흑심 많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차려놓은 재물이 보잘 것 없다고 탓하다가도, 종내에는 이러한 재물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이 평평 쏟아져서 부귀천 열어주겠다[부자 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대감거리를 주재하는 무당이 위의 공수를 준 후에,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어 무언가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동작을 한다. 이러한 동작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채수와 복이 “바람에 불릴 만큼” 가벼운 대상이면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는 표현이다.

다른 한편, 소 갈비작을 통째로 등에 업거나, 소다리로 마당에서 무언가를 굽어 담는 시늉을 하는 것은 채수를 형체가 있는 물체인 재물(財物)로 인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채수란 형체가 없는 영물(靈物)로서 형체가 있는 재물을 “바람처럼 일으키고 불

51) 차려놓은 재물이 보잘 것 없음을 힐난하는 역설적 표현.

52) 굿 터, 즉 의례의 효과를 보아서 3년(만 2년) 후에 정말로 부자가 되고 나면, 의뢰인의 집안에서 다시 굿을 하겠다는 다짐.

53) 위의 ‘채수굿’에서 무녀 U가 내린 ‘대감거리 공수’ 전문. 필자의 녹취 자료.

려주는”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대감거리의 공수와 연행(performance)은 이와 위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믿음을 형상화한다. 이렇게 볼 때,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욕망 성취의 주역을 맡는다고 여겨지는 대감신은 “욕심 많고, 탐심 많고, 흑심 많은” 신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심도 역시 많아서 인간이 바치는 제물(祭物)의 양과 질에 개의치 않고, 재수를 열어 주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비로운 신령이다.⁵⁴⁾

인간의 한계, 욕구불만에 대한 극복의 과정이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의례 현장인 굿판이다. 굿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인물들이나 사물들이 종내에는 원한(怨恨) 관계를 풀고, 어쩔 수 없어 속으로만 괴로워하는 한탄(恨歎)의 자세마저 의연히 넘어서서, 대동의 화해를 이루어내게 된다.⁵⁵⁾ 이렇게 원한과 한탄이라는 안팎에 맺히고 쌓인 한의 본질⁵⁶⁾을, 좌절된 욕망의 어두운 면을 근본적으로 초월하고, 참다운 욕구의 대상인 진정한 복(福)을 맞이하는 경험이 의례 과정에서 표출된다.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초극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모습과 닮아 있기도 하다.⁵⁷⁾

“예, 예, 오늘은 부모라구 낫 없구 면목 없이 왔노라. 세상천지 만물 중에, 아휴, 부모노릇 못하구, 이 세상 하직하구, 저 세상 허락하야, 다시 영천 오지 못할 길을... 아휴, 어허 어허, 원통한 말을 어디다 다 하구, 시원한 말을 어디다 다 하라!”⁵⁸⁾

“이복소! 우리 대감님 청해서, 하, 돈두 벌어다 줘야겠지? 하, 우리 양반대감 한번 오던 길에... 이 정성 드러놓고, 우리 부자 댔담네, 안암동 새 부자 나왔담네...”⁵⁹⁾

외형상 유감(遺憾) 혹은 욕구 불만으로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한계는 부정적이지만 하지는 않다.⁶⁰⁾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인간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고 기획하는 무한정한 욕망의 추구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결국은 이를 수 없는, “대지의 저주 받은 사람들”⁶¹⁾의 구상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유한하고 일회적인 것은 그것이 항상 소유될 수 없기에 중요하고 달콤하며, 무한히 현실적으로 나에게 소유

54) 김성례, 앞의 글(2002), 70-71쪽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

55) 최길성, 『한국인의 한』(예전, 1991), 107-118쪽 참조.

56)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문학과 지성사, 1993), 12-52쪽 참조.

57) 서남동, 『한의 형상화와 그 신학적 성찰』, 『민중과 한국신학』(한국신학연구소, 1982), 319-347쪽 참조.

58)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서 진행된 ‘내림굿’에서 무녀 C가 내린 ‘조상거리 공수’ 일부, 1985년 10월 17일. 필자의 녹취 자료.

59) 서울 삼곡사에서 진행된 ‘재수굿’에서 무녀 U가 내린 ‘대감거리 덕담’ 일부, 1984년 3월 7일. 필자의 녹취 자료.

60) 심층심리학자 C. G. Jung은 意識과 無意識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라고 본다. 무의식은 ‘욕구’만 하거나 욕구 불만의 원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目的意味(Zwecksinn)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C. G. Jung, “Allgemeine Gesichtspunkte zur Psychologie des Traumes”, *Gesammelte Werke*, Bd. 8(Zürich: Rascher, 1967), p.275.

61) 프란츠 파농, 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 받은 사람들』(그린비, 2004), 표제.

될 수 있는 시간은 모든 순간의 내용을 절대적인 무관심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이다.”⁶²⁾

재수굿의 절차는 ‘굿떡’으로 상징되는 정성(祭物)을 바쳐, ‘굿덕’이라고 불리는 보상(報酬)을 거쳐, 목표인 ‘재수’(은총/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이 복을 받으려면, 즉 욕망을 충족시키려면, 신령들의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샤머니즘의 인식이다. 신령이 원하는 바를 인간이 충족시켜 주었을 때, 신령은 비로소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상호성(reciprocity)에 바탕을 두고, 신도의 정성과 신령의 강복(降福)은 서로 주고받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이 바치는 정성과 제물은 현물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 정성은 의례의 진행 과정 중에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현실적인 고난과 한을 극복하여,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바뀔으로써 재수와 복의 상징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러한 절차를 암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현세의 재물과 한정된 행운을 넘어서서 초월적 가치의 의미를 드러내는 종교교육적 기제가 재수굿의 의례 속에 숨어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굿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참가자들에게 체득(體得) 되는 교육적 효과는 드라마틱하다.⁶³⁾ 그것은 특히 “당사자[개인] 보다 가족의 불안,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을 해소”⁶⁴⁾하는데 있어서 탁월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을 바꾼다면, 소외된 욕구와 왜곡된 욕망의 집단 치료를 위하여 샤머니즘 의례가 보여주는 교육적 효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V. 결론: 욕망과 욕구로 풀어본 샤머니즘 의례의 교육적 의미

본론에서 살펴본 대로, 원초적 종교인 샤머니즘의 의례는 현대 사회의 합리성 그 이면에 드리워있는 무한한 소비의 욕망과 기적에 대한 대망(待望)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샤머니즘은 현대 자본주의 문화의 변방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인 잔재(殘滓)가 아니다. 오늘날 샤머니즘은 물질적 욕망과 소비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후기 자본주의 문화의 한 가운데에서 활발히 살아있는 종교 현상이다.

교육학자 김인희에 의하면, 샤머니즘의 강인한 생명력은 끈질긴 전승력 곧 교육적 힘 때문이다. 샤머니즘의 교육력이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샤머니즘의 교육사상, 교육 방법, 교육 목적 등이 샤머니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적, 감정적,

62) J. B. Metz, *Zur Theologie der Welt* (Mainz: Mathias-Grünwald, 1968), p.34.

63) 김광일, 「굿과 정신치료」, 『문화인류학』5(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9쪽 참조. 김광일은 여기서 굿 의례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說得(educational persuasion)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64) 이부영, 「한국 무속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 무속의 종합적 고찰』(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58쪽.

생리적 체질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샤머니즘의 기본사상 내지 교육철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주의적 현세중심주의, 둘째 조화론적 평등주의, 셋째 현실 중심적 실용주의, 넷째 혈연 중심적 인간 이해에 따른 공동체성의 강조.⁶⁵⁾ 이상과 위의 기본사상에 따라, “널리 사회를 이롭게 하여 온 세상을 밝히는 것”이[弘益人間 光明理世] 한국 고유의 샤머니즘적 교육 이념이라고 말한다.⁶⁶⁾

그러나 후기 자본주의 문화의 일상이 보여주는 욕망의 소외 현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존중의 교육이념을 잃게 한다. 그와 같은 왜곡은 인간의 완성을 향한 욕구를 눈앞의 물질로 향하게 하고[物化 reification, Verdinglichung], 그것을 낱알이 해체시켜 버리기까지 한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욕망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이 무질서하게 충족되기 때문에, 각 개인은 주어진 구체적 현실에 점점 더 의존하고 종속을 강화하게 된다. 불의를 향한 저항정신이나 부정에 대한 비판의식은 덩달아 해체되거나 사라진다. 이렇게 원자화(原子化)된 욕망들의 일시적 충족은 공허감, 소외감, 만성적인 불만족감, 결핍감을 낳게 된다.⁶⁷⁾

여기에 샤머니즘이 지닌 원초적인 종교성으로서 만물에 깃들인 정령에 대한 신앙은, 왜곡된 욕망으로 빚어진 세상만물의 물화(物化)를 삼라만상의 영화(靈化 spiritualization, Vergeistlichung)로 바꾸는 영성의 실천, 곧 ‘굿정신’의 발현으로 치유하는 길을 제시할 수도 있다.⁶⁸⁾ 종교의 초-합리성과 경제의 합리성이 등치될 수 없다는 분리주의적 입장에서만 바라볼 때, 샤머니즘의 신앙은 비합리적인 미신으로 치부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나 실제 의례 현장에서 굿 의뢰자와 의례 집전자인 무당 사이에 오가는 대화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일상적인 거래를 넘어서는 목표, 즉 “신령이 베풀어주는 생기복덕”으로 표현되는 은혜와 은총을 지향하는 영성(靈性)도 드러난다. 위에 든 사례에서 대감신이 내려주는 공수 내용처럼, “복빌이, 명빌이에... 평평 쏟아지게 해주는” 것이다.⁶⁹⁾

이러한 현실 인식과 치유방식은 고유의 언어와 행위로 의례에서 전해진다. 그것은 바로 재수굿이 진행되는 동안 풍성하게 쏟아지는 말의 성찬(盛饌 혹은 聖餐)인 무가, 사설, 공수, 축원, 덕담 및 짓거리[의례행위] 등이다. 고난의 경험, 비구원에 대한 체험이 비극적인 분위기가 주조를 이루는 ‘공수’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며, 그러한 비구원의 상황 극복이

65) 김인회, 앞의 책, 190-191쪽 참조.

66) 위의 책, 328-329쪽 참조.

67) 김기곤, 앞의 책, 173쪽; 김광익, 『저항문화와 무속 의례』, 『문화인류학』23(한국문화인류학회, 1991), 164-169쪽 참조.

68) 박일영, 앞의 책(2003), 178-184쪽: “무교의 영성: 굿정신” 참조.

69) 이러한 점은 한국 보다 현대화의 길을 앞서 걸은 일본의 샤머니즘 전문가 사쿠라이 도쿠타로(櫻井德太郎)가 일찍이 197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앞의 책, 153-154쪽: ‘종합토론’ 참조. 여기서 사쿠라이 도쿠타로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 - 이미지 소비로 이어지는 합리성 만능의 현대 사회에서 욕망의 무한한 추구를 바로잡을 대안으로 ‘합리 이전의’ 세계로 복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점에서 샤머니즘이 지닌 교육적 의미와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희극적인 분위기로 전환된 ‘덕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⁷⁰⁾

이렇게 넘치도록(overplus) 무엇인가를 베풀겠다는 신령의 다짐은 신도가 바친 제물이 지닌 재화의 교환 가치 이상의 그 무엇이다. 샤머니즘 의례에서 지향하는 채수와 복이란 바로 이렇게 무한한 종교적 가치를 지닌 신령의 은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용어이다. 샤머니즘 의례는 그렇다면 은총과 보답으로 이어지는 신령과 인간 사이의 상호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상징적 실천행위이다. 이러한 윤리의식은 사회봉사, 불우이웃 성금, 사회복지 시설 지원 등의 도덕적 명분과 실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⁷¹⁾

종교 연구자들 중에서 일부는 샤머니즘이 기복신앙으로 폄하(貶下)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미신으로 낙인 찍혀온 또 하나의 이유를 샤머니즘의 구원관이 타력 구원의 종교로 여겨진데 기인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샤머니즘은 불교나 도교처럼 우주의 원리를 깨치거나,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처럼 유일신의 개입으로 인간의 완성을 회구하는 종교들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샤머니즘은 이 세상 안에서 작용하는 초인간적인 힘에 의지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종교 형태이다. 어떤 면에서는 굿판에서 초월적 존재와 인간의 삶이 현시적으로 접촉하면서 초인간적 감성을 계발하여, 거리낌 없는 상상력의 발산을 통한 ‘목적의미’(Zwecksinn)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⁷²⁾

의례의 현장인 굿판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내용들은 절실한 삶의 현장에서 생성된 것들이다. 비구원의 세계 안에서 욕구의 좌절과 욕망의 왜곡을 겪는 이들의 이야기들은 이 시대의 징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이정표이다. 이러한 이정표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좌절을 벗어나서 초월의 경험을 하는지 가리킨다. 다시 말하자면, 모순으로 가득 차고 왜곡된 욕망과 소외된 욕구가 횡행하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는지, 미래에 대하여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떠한 해방과 구원을 기대하는지를 암시해 준다.⁷³⁾

70) 최길성, 앞의 책(1991), 119-135쪽 참조.

71) 이러한 이치는 경인 지역 마을굿의 군웅거리에서 군웅신이 마을을 수호하기 위하여 화살을 쏘아 사악한 힘들을 위협하고 물리칠 때조차도 화살 끝에 떡 조각을 꽂아서 날려 보내는 짓거리(동작)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김인회, 『민속(무속)과 교육』 『비교민속학』 25(비교민속학회, 2003), 30쪽.

72) Cfr. C. G. Jung, “Zur Psychologie westlicher und östlicher Religion”, *Gesammelte Werke*, Bd. 11(Zürich: Rascher, 1967), p.448.

73) 강영옥, 『고통. 신앙의 단초』(우리신학연구소, 1999), 183-244쪽 참조.

참고문헌

- 강영옥. 『고통, 신앙의 단초』. 우리신학연구소. 1999.
- 김광억. 「저항문화와 무속 의례」 『문화인류학』23(한국문화인류학회. 1991).
- 김광일. 「굿과 정신치료」 『문화인류학』5(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 김금화. 『복은 나누고 한은 푸시게』. 푸른숲. 1995.
- 김기곤. 『욕망의 인간학』. 세종출판사. 1997.
- 김상일. 「켄 윌버의 초인격심리학과 한국무속」 『한국무속학』6(한국무속학회. 2003).
- 김성례. 「神들림 체험과 은총에의 추구」 『문화인류학』16(한국문화인류학회. 1984).
- 김성례. 「기복신앙의 윤리와 자본주의 문화」 『종교연구』27(한국종교학회. 2002).
- 김인회. 『한국인의 가치관』. 문음사. 1979.
-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7.
- 김인회. 「민속(무속)과 교육」. 『비교민속학』25(비교민속학회. 2003).
- 김현선. 『황해도 무당굿놀이 연구』. 보고서. 2007.
- 무녀 C. 「내림굿 조상거리 공수」(녹취 자료).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1985년 10월 17일.
- 무녀 U. 「재수굿 대감거리 덕담」(녹취 자료). 서울: 삼곡사. 1984년 3월 7일.
- 무녀 U. 「재수굿 대감거리 축원」(녹취 자료). 서울: 삼곡사. 1984년 3월 7일.
- 무녀 Y. 「재수굿 산천거리 상산무가」(녹취 자료). 서울: 삼곡사. 1984년 3월 6일.
- 무녀 Y. 「재수굿 산천거리 사설」(녹취 자료). 서울: 삼곡사. 1984년 3월 6일.
- 박원길. 『북방 민족의 샤머니즘과 제사습속』. 국립민속박물관. 1998.
- 박일영. 「종교 간의 갈등과 대화. 무속과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종교신학연구』 2(서강대학교. 1989).
- 박일영. 「무속의 대동잔치」 『종교신학연구』3(서강대학교. 1990).
- 박일영. 「한국 무속의 신관」 『사목』149(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6).
- 박일영. 『한국 무교의 이해』. 종교학총서 9. 분도출판사. 1999.
- 박일영.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아시아신학총서 10. 분도출판사. 2003.
- 막스 베버.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2000.
- 서남동. 「한의 형상화와 그 신학적 성찰」 『민중과 한국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82.
- 양종승. 「황해도 맞이굿 형식과 특성 고찰」. 한국무속학회 편. 『황해도 굿의 이해』. 민속원. 2008.
- 오경환. 『종교사회학. 개정판』. 서광사. 1990.
-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샤머니즘의 현대적 의미. 제2회 국제 민속학 학술회의. 동양 샤머니즘학자 대회록』. 이리(익산): 원광대학교 출판부. 1972.
- 이능화. 「조선무속고」 『계명』19(계명구락부. 1927).
- 이부영. 이철규. 장환일. 「토속신앙과 관련된 정신장애 사례의 분석」 『문화인류학』3(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 이부영. 「한국 무속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 무속의 종합적 고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 일상문화연구회 엮음. 『한국인의 일상문화』. 한울. 1996.

- 임재해, 「굿의 주체를 통해 본 굿의 양상과 현실인식」 『한국무속학』1(한국무속학회, 1999).
- 전경갑, 『욕망의 통제와 탈주. 스피노자에서 들뢰즈까지』, 서울: 한길사, 1999.
- 정진홍, 「韓國 宗教文化의 展開」, 『韓國 宗教의 理解, 張秉吉 教授 隱退紀念 論叢』, 집문당, 1986.
- 조형경, 「바리공주 무가의 기호학적 분석」,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조흥윤, 『巫. 한국 무의 역사와 현상』, 민족사, 1997.
-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 최경호, 「“미신타파” 이후의 洞祭와 마을의 正體性」,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최길성, 『한국인의 한』, 예전, 1991.
- 프란츠 파농, 남경태 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린비, 2004.
- 한국무속학회 편, 『황해도 굿의 이해』, 민속원, 2008.
- Gadamer, Hans-Georg,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1975.
- Girard, René, *La violence et le sacré*,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 Jung, Carl Gustav, “Allgemeine Gesichtspunkte zur Psychologie des Traumes”, *Gesammelte Werke*, Bd. 8, Zürich: Rascher, 1963.
- Jung, Carl Gustav, “Zur Psychologie westlicher und östlicher Religion”, *Gesammelte Werke*, Bd. 11, Zürich: Rascher, 1967.
- Kendall, Laurell, “Korean Shamans and the Spirits of Capitalism”, *American Anthropologist* 98: 3, 1996.
- Metz, J.B., *Zur Theologie der Welt*, Mainz: Mathias-Grünwald, 1968.
- Schwager, Raymund, *Brauchen wir einen Sündenbock?*, München, 1978.
- Taylor, Mark, *About Religion: Economics of Faith in Virtual Cultur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원고접수: 2009년 10월 22일 1차심사: 11월 15일 게재승인일: 12월 1일

연구자소개: 박일영

- ① 전공: 종교학/ 소속: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② 관심영역: 샤머니즘, 한국종교, 문화적응, 종교간 대화
 - ③ 주요논저: 『한국의 종교와 현대의 선교』(2008),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2003), 『한국 무교의 이해』(1999)
 - ④ E-mail: onezero@catholic.ac.kr
-

Abstract

Reception and Solution of Desire in the Perspective of Shamanism

Park, Ilyoung

Dept of Religious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re are two main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description of desire in shamanistic world and the educational persuasion process of shamanistic ritual. First, this article explains how to receive and solve “desire” in shamanistic world[reception of good wish] with analysis how to prevent and remove obstacles against the desire, especially focusing on *chaesu-kut*(ritual for good fortune). Second, shamanistic rituals[ritual play as effective pray] as a transition by overcoming obstacles and realizing their goals can be considered as effective educational persuasion process.

Generally, Shamanism is known as a representative religion for fortune-seeking belief in Korea. It is wide spread for people to recognize that the world of shamanism is a space where humane wish or desire is expressed plainly because they devote sacrifice to the divinities and seek fortune for themselves. There are a lot of shmanistic rituals, but *chaesu-kut* can be told as a remarkable ritual that expresses the “fortune-seeking” content in shamanistic belief system. In this ritual, *chaesu-kut*, people pray commonly for good fortune, a lot of money, health and longevity. Moreover, it might be said that the concrete contents what common people want consist more or less of these elements.

Shamanism is famous as a religion without official canon. Hence, we have to look up shamans' songs, story-telling, oracles, and benediction etc. in order to obtain shamanistic thoughts, dogmatic contents, and the religious practice.

Key words: shamanism, desire, wish, reception of good wish, solution of distorted desire, ritual play as effective pray, educational persuasion process of ritual